



격동의 대 전환기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하나

칼럼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 동정은 국내에 있을 때나, 국외에 있을 때나 국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그 무게와 영향력은 가히 헤아리기 어렵게 무겁고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 제일의 공인(公人)으로서도 갖추고 지켜야 할 품격과 능력은 평범한 서민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 상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7일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을 마치고 9월 2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엘리자베스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으나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만 참석하여 논란을 빚었다. 조문 불참 이유를 교통 혼잡이라고 했다가, 오후 도착한 국빈은 다음날 조문한다고 발표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주(駐)유엔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로 가다가 후미오 일본 총리를 새벽에 찾아가서 대한민국 국기도 없이 앉아서 30분 간담을 했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서서 48초 동안 환담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분석에 의하면, 한 사람이 24초씩, 윤 대통령은 통역 12초 빼면 12초 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해 주면, 바이든 쪽 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옆에 있는 박진 외교장관과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을 돌아보며 내뱉은 충격적인 비속어가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 수행 사진기자단이 촬영하고 녹음해서 전 언론사에 배포하고, 세계적인 외신들도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머저리(병신)'로 비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소동이 벌어진 후 15시간만에 나온 대통령실 반응은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의 해명이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해 주면, 날리면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새끼들'은 '미국 의회'가 아니고 '한국 국회(야당)'를 뜻하고,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는 설명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짜낸 기막힌 말이다.

앞에서 느닷없이 날벼락 맞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169명 국회의원들이 모두 새끼들이나, 우리가 이 새끼들인 윤 대통령은 저 새끼나 등 구걸외교·굴욕외교·욕설외교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외교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장관·국가안보실장·홍보수석비서관 등의 외교라인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반응은 불만이다. 왜곡해서 동맹국을 이간질하지 마라, '바이든'이 아니고 '잘리문(잘리문)'이다, 김 홍보수석이 발표한 '이 새끼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다.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대한 MBC의 보도를 둘러싼 논란을 보고 어이가 없다. 사적 발언을 보도한 언론도 잘못이다. 좌파들이 '이 새끼들'로 잘못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못된 무리들이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저부터 최일선에 서 온 몸을 던져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 자세 감수, 인증샷 찍기 즉석외교가 된 것은 대통령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선불리 발표하고, 일이 꼬이게 되자 모양새를 구기더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바심과 사전준비 부실, 대처능력 부족이 빚은 결과다. 국가 간 정상외교는 모든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의전과 격식이 사실상 성패를 좌우한다. 이번 외교참사와 국격(國格)을 훼손시킨 책임을 엄중히 묻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9월 4주차(20~22일)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28%, 부정 61%였다. 5월 10일 취임하여 5개월 된 임기 초반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두 배가 되고, 긍정이 20%대에 갇혀 있다는 것은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다. 부정 평가의 주 원인은 자질·경험 부족과 무능력이다. 특단의 변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윤석열 정권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라면 국정운영 동력도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우면 기적(奇蹟)이다.

한글검열에서 발표한 9월 4주차(20~22일)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28%, 부정 61%였다. 5월 10일 취임하여 5개월 된 임기 초반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두 배가 되고, 긍정이 20%대에 갇혀 있다는 것은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다. 부정 평가의 주 원인은 자질·경험 부족과 무능력이다. 특단의 변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윤석열 정권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라면 국정운영 동력도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우면 기적(奇蹟)이다.

생명의 골든타임, 응급처치로 지키자

기고

이우람 담양소방서 소방교



우리는 가끔 방송 또는 신문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소생시키는 기사를 접하곤 한다. 이처럼 살면서 겪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법을 몰라 대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기치 않던 때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응급처치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를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 2가지 응급처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 주는 응급처치로 가장 많이 시행한다.

첫째,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살피고 반응이 없다면 큰소리로 주변사람에게 알린 뒤 119에 신고 요청을 한다.

둘째,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가슴압박 30회를 실시 후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하고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다음 하임리히법은 음식 등의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

첫째, 말을 할 수 없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는 등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한다.

둘째,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 손을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위에 걸친 후 배를 감싼다. 주먹 한 손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두고 배를 위로 쓸어 올리듯 강하게 밀어 올려야 한다.

셋째, 이물질이 밖으로 나왔는지 확인하면 환자의 상태에 맞춰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응급상황이 일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 두길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법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공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구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자녀가 돈을 보내달라 해서 이체했더니, 알고 보니 메신저피싱

기고

신용진 보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계사

"아빠(엄마), 나 교통사고가 나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그래서 전화가 안되고 문자만 돼"
"급하게 돈을 보내야 될 곳이 있는데, 아빠(엄마)가 대신 이체좀 해주면 안될까?"

이런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내용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왔으면 100% 메신저피싱이다.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메신저 어플(APP)을 통해 사기범이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해킹·도용하여 자신이 가족, 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어플에서 사기범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실제 피해자의 가족·지인들 프로필 사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자칫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지인으로 오인하여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만 피해액이 약 1200억 원에 달해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SNS(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에



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금전요구를 받을 시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은 메신저 어플을 통해 자신을 가족, 지인이라고 속이면서 금전이 당장 필요하다는 등 긴급상황임을 자처하며 금전·문화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화가 불가능하다는 등 직접 통화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니, 아무리 긴급상황으로 보여도 사전에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 해킹·도용 방지를 위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휴대폰 연락처 등)를 해킹하여 주변 가족·지인들로 위장하여 접근하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URL 실행이나 어플 설치를 금지하여야 하고,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 저런 수법이 걸리는 사람도 있나"라는 생각보다 나 자신도 언제든 피해자로 지목될 수 있기에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